

2018학년도 생활과 윤리 몽몽 모의평가 정오표

2018학년도 생활과 윤리 몽몽 모의평가 검토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분이 계시기에 검토를 더욱 세심하게 했어야 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정오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타나 오류가 발견될 시 정오표를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차 및 쪽수	문항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해설지 p.47	5회 18번	○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형벌이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베카리아는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칸트는 형벌이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반면, 베카리아는 형벌이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형벌의 정도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증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지 p.29	3회 20번	[더 알아보기]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밑에서 3번째 줄 ‘mr’	‘그’로 수정	
해설지 p.39	4회 19번	[더 알아보기] 의사소통에서 지켜야 할 규범 ⑤ ~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⑤ ~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